

- 대한고려인협회와 남동구가족센터에 각각 100만원 상당 도서상품권 전달
- 12월 27일, 고려인·다문화가정 대상 송년음악회 초청 행사 마련

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지난 12월 3일 대한고려인협회와 남동구가족센터에 각각 100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전달했다. 이번 기부는 내년 1월 25일까지 전시되는 기획특별전 <천천히 서둘러라: 알도 마누치오, 세상을 바꾼 위대한 출판인>을 기념하여, 문자와 출판문화 확산의 가치를 지역사회와 나누고자 추진됐다.

전달된 도서상품권은 각 기관을 통해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과 다문화가정 등 문화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. 특히 도서 구매 접근성이 낮은 이주민·다문화 구성원의 한글 학습과 독서 활동을 지원하는 데 활용될 전망이다.

박물관은 기부 활동과 더불어 고려인 및 다문화가정 주민들을 오는 12월 27일 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송년음악회에 초청한다. 이날 공연에서는 ‘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KNSO 아카데미’가 겨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현악 모음곡, 캐럴 모음곡, 영화 음악 및 팝송 메들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.

국립세계문자박물관 관계자는 “박물관은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대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전시·교육·문화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”며 “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헌 활동을 지속해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붙임 : 이미지 자료 1식(4장). 끝.



[사진1] 대한고려인협회 나눔행사 이미지



[사진2] 대한고려인협회 나눔행사 이미지

(원) 대한고려인협회 정영순 회장 / (오)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엄성근 사무총장



[사진3] 남동구가족센터 나눔행사 이미지



[사진4] 남동구가족센터 나눔행사 이미지

(원)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강동현 기획운영부장
(오) 남동구가족센터 박동규 센터장

(원)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이시종
홍보디자인부장, 강동현 기획운영부장
(오) 남동구가족센터 박동규 센터장, 박유나
팀장